

殷商과 周代 출토문헌에 보이는 五方の 확대 형태

박 성 우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 홍익재단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목차

1. 서론
2. 殷商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3. 西周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4. 東周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5. 결론

1. 서론

고대 동아시아의 전통과 사상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五行의 시원과 발전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水·火·木·金·土라는 五材를 토대로 한 五行은 東周시대 이후의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五材를 활용하여 인간계의 사회 문화 형성의 원리와 구조 관계 또는 자연계 만사만물의 이치·변화·원리 작용 및 형성을 설명했다는 데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문헌 작성 시기의 한계로 인하여 五行의 본원적 의미를 탐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라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殷商 갑골문과 西周 金文에서

영토적 중점의 五方 즉, 중앙을 나타내는 商과 동방·서방·남방·북방이라는 방위를 중시하며 기록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위적 개념을 바탕으로 지리적 형태의 모든 공간을 五方の 틀 안에 배속하여 모종의 수확을 기원하는 제례 형태의 등장과 다섯 방위를 각각 관장했다고 보이는 五臣의 형태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래문헌의 기록을 보충 참고하여 東周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五方이 四時라는 다른 계통과 연계 결합된 부분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만사만물을 다섯 형태로 나누어 배속된 방식과 함께 水·火·木·金·土라는 五材에 기반한 五行 발생, 그리고 五材를 이용하여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자연의 이치를 기술한 형태가 확인된다는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 진행되었다.¹⁾

五方과 五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五方은 방향과 공간 구분이라는 실질적 개념이며, 五行은 원리와 이념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五方은 五行을 탄생시킨 토대이면서 전국시대 이후 우주생성론과 도덕심성론의 범주에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五行의 근원은 五方에서 시작되었고, 본래 동·서·남·북·중이라는 패권을 장악한 영토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영토 관점으로부터 점차 의미가 파생, 변천되어 여러 분야로 확대 또는 상호 결합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五方을 중심으로 확대된 형태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정리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殷商시기 갑골문에 보이는 영토적·공간적 관점의 五方과 함께 파생된 의미를 제시하고, 西周와 東周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파생된 의미의 확대 변천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五方과 관련된 의미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문헌 기록의 바탕을 이루는 五行의 본원적 의미를 정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박성우·문치용,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85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1년.

2. 殷商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본 장에서는 문자와 문장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에 보이는 五方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기점으로 확장 또는 변천된 의미를 각각 분류 제시하여 확대된 형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다. 또한 자료의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부차적으로 전래문헌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殷商시기 갑골문에서는 水·火·木·金·土라는 五材에 의한 五行을 살펴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東·西·南·北·中이라는 지리적 구역을 구분한 五方の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²⁾

己巳王卜, 貞(今)歲商受(年). 王^𠄎曰: 吉. (『合』36975.1)
기사일에 왕이 균열을 내어 점치기를, 올해 商은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왕이 점괘를 판단하여 말하길: 길하다.

東土受年. (『合』36975.2)
동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南土受年. 吉. (『合』36975.3)
남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西土受年. 吉. (『合』36975.4)
서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北土受年. 吉. (『合』36975.5)
북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길하다.



36975

2) 郭沫若, 『甲骨文合集』第十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3年.

이상 제시한 용례는 모두 하나의 갑골에 새겨진 내용으로, 殷商시기 商이라는 점유 공간과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를 사용하여 모든 공간의 풍작을 기원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 이는 농업이 주 생산 분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한 표현 행위로 간주되고, 지리적 개념의 공간을 東·西·南·北·中이라는 五方の 틀 안에 국한한 형태로 서술되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에 근거하면 근본적으로 五方이라는 영토적 관점이 바탕 되었고, 차츰 그 의미로부터 확장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五方을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갑골문 용례를 제시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검토 분석하도록 한다.³⁾

(1) 祭祀 형태

『左傳』成公13년의 기록에서 “국가의 대사는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⁴⁾, 『國語·魯語上』의 기록에서 “무릇 제사는 국가의 큰 제도이다(夫祀, 國之大節也).”⁵⁾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사는 고대 국가 제도의 중요 행위 중 하나로, 殷商시기 갑골문 자료에서 또한 이와 연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五方이라는 영토적 관점과 연계하여 제사가 거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공간을 五方이라는 규격화된 틀 안에 귀속시켜 도처에서 모종의 이익을 얻고자 발생한 표현법으로 여겨진다.⁶⁾

辛亥卜, 內貞: 帝于北方曰(𠄎)風曰(役), 禘(年). (『合』14295.7)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내가 점을 쳤다. 𠄎으로 일컫는 北方과 役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3) 殷商시기 영토적 관점을 다섯 방위의 형태로 인식했던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 박성우·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85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1년.

4)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861쪽.

5)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組校點, 『國語(共二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年, 165쪽.

6) 郭沫若, 『甲骨文合集』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1979年.

辛亥卜, 丙貞: 帝于南方曰崐, 風夷, 𠄎年. (『合』14295.8)

신해일에 균열을 내어 丙가 점을 쳤다. 崐으로 일컫는 南方과 夷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東方曰析, 風曰荔, 𠄎年. (『合』14295.9)

점치기를, 析으로 일컫는 東方과 荔으로 일컫는 風에게 禘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貞: 帝于西方曰彝, 風曰東, 𠄎年. (『合』14295.10)

점치기를, 彝로 일컫는 西方과 東으로 일컫는 風에게 帝 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

위 갑골 복사의 내용을 보면,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에서 모든 공간을 동서남북이라는 네 방위의 틀 안에 넣어 풍년을 기원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다. 특이한 점은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을 기축으로 동방을 析으로, 서방을 彝으로, 남방을 崐으로, 북방을 役으로 일컫었고, 각 방위에 해당하는 바람 또한 荔, 東, 夷, 役으로 명칭 되었다는 부분이다. 胡厚宣은 일찍이 명명된 “析, 彝, 崐, 役”에 대하여 네 방위를 담당하는 神을 의미하고, 복사에 주로 등장하는 제사 대상 “土”가 중앙 商의 社神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⁷⁾ 즉, 점유 공간에서 사방을 인격화하고 바람을 명명하며 제사라는 중대 행위를 설명한 부분으로, 영토적 관점의 五方으로부터 점차 확대 형태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을 중시한 殷商시기 사시사철의 기후 변화라는 자연적 전제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바람에게 명명된 자형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서방의 바람에 명명된 東을 介로 읽고 大로 풀이하여 동쪽을 향해 강하게 부는 新疆 고원의 서북풍을 지칭하였다거나, 북방의 바람에 명명된 役을 洌로 읽어 북방의 寒風을 지칭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⁸⁾ 즉, 五方

7)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年, 486-487쪽.

8) 于省吾, 「釋四方和四方産的兩個問題」,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79年, 123쪽.

을 바탕으로 확대 구성된 형태는 문화적·자연적 특색과 만물유생론을 믿는 당시의 시대 관념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며, 더욱이 자연적 현상과 네 방위가 어우러져 점유 공간에서 제사라는 행위가 이뤄진 형태는 五方이라는 영토적 관점이 더욱 중시되고 정착하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바탕 아래 五方に 점차 여러 인사와 사물이 배당되는 현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帝五臣 형태

殷商시기 갑골 복사를 살펴보면, 帝는 가장 높은 권위와 지위를 지니고 자연계의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관장하며, 인간세상의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전지전능한 존엄한 대상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帝가 五臣과 함께 쓰여 五方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인식되는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庚午貞: 秋大稱, 于帝五多臣寧. 在祖乙宗卜. 茲用. 『合』34148

庚午일에 점치기를 메뚜기가 기승하여 帝의 五多臣에게 祖乙의 종묘에서 균열을 내니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貞: 其寧秋于帝五多臣, 于甲告. 『屯』930.2

점치기를 帝의 五多臣에게 제사를 거행하면 메뚜기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선공 上甲微에게 보고한다.

辛亥卜□五臣□. 『合』30391.1

辛亥일에 균열을 내어 □五臣□.

王又(侑)歲于帝五臣正, 隹亡雨. 『合』30391.2

왕이 帝의 五臣正에게 侑歲 제례를 지내면, 비가 없을 것이다.

□_帝又(侑)于帝五臣, 又(有)大雨. 『合』30391.3

帝의 五臣에게 侑 제례를 지내면,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위 제시한 갑골문 용례에서 “帝五多臣”, “帝五臣”, “帝五臣正”이라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五方과 어떠한 연관이 있고, 고대 사회의 어떠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帝”와 함께 쓰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五臣”과 “五方”의 관계와 함께 “五臣”이 민생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帝”와 함께 제례라는 중요 의식이 거행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먼저, 위 제시한 『合』30391에서 확인되는 2와 3 두 문장의 동일한 언어 표현에 근거하여 “帝五臣”은 “帝五臣正”의 생략형이나 혹은 두 어절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더욱이 두 문장은 또 다른 갑골 복사 『合』30298의 “帝臣에게 {제례를 지내면}, 비가 있을 것이다(于帝臣, 又{有}雨).”라는 구절과 유사한 형태로 서술되어 “帝五臣”과 “帝五臣正”은 모두 “帝臣”에서 확대된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臣”은 『說文』에서 “끌고 간다는 것이다. 군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구부러 복종하는 형태를 형상하였다(牽也. 事君也. 象屈服之形).”⁹⁾라고 하였고, 『禮記·禮運』에서는 “公에게 베풀하는 사람을 “臣”이라 하고, 大夫의 집에서 베풀하는 사람을 사이라고 한다(公仕於公曰臣, 仕於家曰仆).”¹⁰⁾라고 하였으며, 『左傳』襄公9년에서는 “임금은 현명하고 신하는 충직하며 위사람은 謙讓하고 아랫사람은 힘을 다한다(君明臣忠, 上讓下競).”¹¹⁾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臣”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신하”로 풀이하고, “帝臣”을 “帝의 신하”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골문 자료에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어떠한 원류를 거쳐 형성되었는지 더 이상의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일찍이 陳夢家是 帝 朝廷의 관료를 지칭한다고 주장하였고,¹²⁾ 胡厚宣은 “帝五多臣”, “帝五臣”, “帝五臣正”에 대하여 五方을 담당한 神을 말하며, 각 지역의 인간사 운명을 주관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¹³⁾ 이 밖에 連劭名은 “帝五臣”, “帝多五臣”은 五行

9) [漢]許慎; [宋]徐鉉校定,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年, 66쪽.

10)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681쪽.

11)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967쪽.

12)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1988年, 572쪽.

의 神으로, “五官”으로도 칭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¹⁴⁾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해 帝五臣에 대한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左傳』 昭公29年에서 “그러므로 五行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니 이를 五官이라고 한다. 이 五官은 실제로 나란히 氏와 姓을 받고, (생전에는) 작위를 받아 상공이 되었으며, (사후에는) 제사를 받는 귀한 신이 되어 사직과 오사의 제사되어 준봉을 받는다. 木正을 句芒이라고 하고, 火正을 祝融이라고 하고, 金正을 蓐收라고 하고, 水正을 玄冥이라고 하고, 土正을 后土라고 한다(故有五行之官, 是謂五官, 實列受氏姓, 封爲上公, 祀爲貴神, 社稷五祀, 是尊是奉,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¹⁵⁾라고 하였고, 『禮記·月令』에서는 “이로써 山川의 제사와 帝의 大臣, 天의 神祇의 제사를 모두 마친다(乃畢山川之祀, 及帝之大臣, 天之神祇).”라고 하여 鄭玄 注에서 “孟월에 종묘에 제사하고, (季月) 때에 이르러 佐臣에게 제사한다(孟月祭其宗, 至此可以祭其佐也).”라고 하였으며, 孔穎達 疏에서는 “五帝에게 제사하고, 大臣 句芒에게 부차적으로 제사한다(則五帝爲宗, 大臣句芒等爲佐).”¹⁶⁾라는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제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帝五臣은 帝의 大臣으로, 帝五臣은 “句芒”, “祝融”, “蓐收”, “玄冥”, “后土”와 대응하고, 木正·火正·金正·水正·土正의 木·火·金·水·土라는 다섯 요소는 방위를 상징적으로 대체하여 나타난 戰國시대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후대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臣”을 동·서·남·북·중이라는 각 방위를 담당해 다스리는 帝의 大臣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帝五臣正”의 “正” 또한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儀禮·大射』를 보면 “小臣正은 왼쪽 소매를 벗을 수 있도록 도우고, 公은 주색의 짧은 저고리를 벗는다. 탈의가 완료되었다면 小臣正은 東堂으로 퇴장하여 기다린다. ……小臣正은 왼쪽 소매를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公이 회당에서 한 계단 내려오면 小臣正은 빈객을 그만두게 하고, 빈객은 회당으로 올라가 公에게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며, 公은 재배하여 답한다(小臣正贊袒, 公袒朱襦,

13)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年, 487쪽.

14) 連劭名, 「甲骨刻辭所見的商代陰陽數術思想」, 『中國古代思維模式與陰陽五行說探源』,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年, 234쪽.

15)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502쪽.

16)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384쪽.

卒祖, 小臣正退俟於東堂. ……小臣正贊龔. ……公降一等, 小臣正辭. 賁升再拜稽首, 公荅再拜.”¹⁷⁾라고 하여 군주의 측근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小臣正”이라는 직책의 업무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正”은 “長官”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國語·周語中』에서 “대방의 귀빈이 이르면, 접대하는 격식을 한 등급 올려 더욱 공경히 대한다. 천자의 사신이 이르면 모든 관사의 장관[官正]이 접대하는 일을 맡아 하며 上卿이 감독한다(其貴國之賓至, 則以班加一等, 益虔. 至于王吏, 則皆官正蒞事, 上卿監之).”라고 하여 韋昭의注를 보면, “正은 長이다(正, 長也).”¹⁸⁾라고 하였고, 『周禮·天官冢宰·序官』에서 또한 “宮正에는 상사 2인, 중사 4인, 하사 8인, 부 2인, 사 4인, 서 4인, 도 40인이다(宮正: 上士二人, 中士四人, 下士八人; 府二人, 史四人, 胥四人, 徒四十人).”라고 하여 鄭玄의注를 보면 “正은 長이다. 궁정은 궁내 관리를 주관하는 장이다(正, 長也. 宮正, 主宮中官之長).”¹⁹⁾라는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제시한 주해를 통하여 “正”은 관할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급 관리 혹은 책임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帝五臣正”은 帝의 大臣 즉, 帝의 고급 관리 혹은 帝의 다섯 책임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儀禮·大射』에서 “公이 회당에서 한 계단 내려오면 小臣正은 빈객을 그만두게 하고(公降一等, 小臣正辭)”²⁰⁾라는 문장은 「燕禮」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小臣正”이라는 용어가 단지 “小臣”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이 같은 특징은 “小臣正”과 “小臣”이 서로 동일 대상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다. 더욱이 고위 관료의 직책 명칭에 正을 넣어 기록하였다는 분석에 근거한다면,²²⁾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臣正”과 “帝五臣”은 동일한 의미이며, 모두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방향의 구역을 관리하는 帝의 다섯 책임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帝五多臣” 또한 “帝五臣”, “帝五臣正”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帝五多臣”에서 확인되는 “多”에 대하여 과거에는 “玉”으로 풀이하였는

17)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039-1040쪽.

18) 徐元誥撰; 王樹民, 沈長雲點校, 『國語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2年, 68쪽.

19)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640쪽.

20)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040쪽.

21)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023쪽.

22) 鄒漢勛, 『讀書偶識』, 北京: 中華書局, 2008年, 194쪽.

데, 여러 고증을 통하여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²³⁾ 현재 “工” 혹은 “介”로 풀이하는 두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풀이 모두 “帝五臣”, “帝五臣正”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교적 근래에 고석 발표된 자료를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는 “彡”을 “珽”으로 풀이하고 “工”으로 읽어 “帝五工臣”으로 풀이한다는 견해로,²⁴⁾ 『左傳』 昭公17年の “五雉로 五工正을 삼다(五雉爲五工正).”라는 “五工正”과 대응하며, 杜預 注의 “五雉의 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西方의 雉를 鷓雉라고 하고, 東方의 雉를 鷓雉라고 하며, 南方의 雉를 翟雉라고 한다. 北方의 雉를 鷓雉라고 하고, 이수와 낙수 남쪽의 雉를 翟雉라고 한다(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鷓雉, 東方曰鷓雉, 南方曰翟雉, 北方曰鷓, 伊洛之南曰翟).”²⁵⁾라는 문헌 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즉, 昭公17年の 기록에 근거하여 “帝五彡臣”을 “帝五工臣”으로 풀이하고 사방과 중앙에 배속되어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방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帝五臣”, “帝五臣正”과 동일한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彡”를 “介”로 해석하고, “副”로 읽었으며, 『尚書·秦誓』의 “만일 한 신하가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른 재주는 없으나(如有一介臣, 斷斷猗無他技)”라는 문헌 내용에서 “一介臣” 즉, “수사 + 介臣” 형태에 근거하여 “帝五彡臣”을 “帝五介臣”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동일한 내용의 두 용례에서 단지 “三介父”와 “三父”가 혼용된 부분에 근거하여 “帝五臣”은 “帝五介臣”의 생략 형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⁶⁾ 이상 서로 다른 두 견해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고석된 두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帝五臣”, “帝五臣正”과 동일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위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臣”, “帝五臣正”, “帝五彡臣”은 모두 군신 관계로 구성된 다섯 관리 즉,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を 관장하는 帝의 다섯 책임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23)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9年, 3281쪽.

24) 王進鋒, 『臣、小臣與商周社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8年, 350쪽.

25)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388쪽.

26) 姚萱, 「華東甲骨“多彡臣”與相關問題」, 『史林』第6期, 上海: 上海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2010年.

언급할 만한 부분으로, 전래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인간계의 실존 대상을 지칭할 때 帝의 신하 즉, 帝臣과 五臣을 사용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帝臣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면:

『論語·堯曰』: “나 小子 履는 감히 현모를 (제물로) 사용하여 감히 훌륭한 后帝에게 고하나이다. 罪가 있는 자를 감히 사면할 수 없고, 帝臣을 掩蔽할 수 없으니, 簡擇하는 것은 帝心에 달렸습니다(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이상 위 구절에 대한 何晏의 集解를 보면, “帝臣의 지위에 있는 桀의 罪過를 은폐하지 않았으니, 이는 天心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다(言桀居帝臣之位, 罪過不可隱蔽, 以其簡在天心故也).”²⁷⁾라고 하여 “帝臣”을 桀王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五臣의 형태 또한 점차 실제 국가 관직에 적용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五方으로부터 파생된 형태가 체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자연계의 만사만물과 연계되며 나타난 표현으로 판단된다.

『管子·大匡』: “금일 군주께서 패업을 성취하고자 하시면 신은 명을 받들기 희망하여 재상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五官에게 명하여 업무를 행사하였다(今日君成霸, 臣貪承命, 趨立於相位, 乃令五官行事).”

『管子·君臣上』: “군주가 밝고, 재상은 믿음이 있고, 五官이 엄숙하고, 사인이 청렴하고, 농부가 우직하고, 상인과 장인이 진실하면, 위아래가 하나가 되며 바깥과 안이 구별된다(君明、相信、五官肅、士廉、農愚、商工愿, 則上下體而外內別也).”

『禮記·曲禮』: “천자의 五官은 사도, 사마, 사공, 사사, 사구를 전사오중이라

27)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年, 2535쪽.

고 한다(天子之五官：曰司徒、司馬、司空、司土、司寇，典司五衆).”

『淮南子·天文訓』：“五官이란, 동방은 전, 남방은 사마, 서방은 리, 북방은 사공, 중앙은 도이다(何謂五官? 東方爲田, 南方爲司馬, 西方爲理, 北方爲司空, 中央爲都).”

위 용례에서 확인되는 五官 즉, 五臣은 고대 왕실에 속한 관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に 각각 소속된 관리의 의미로 서술되었다. 이 밖에도 다른 전래문헌에서 또한 다섯 방위에 소속되어 역할을 담당해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左傳』昭公17年에서 “그러므로 새로써 기록하여 벼슬을 새의 이름으로 命名하였으니(故紀於鳥, 爲鳥師而鳥名).”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의 疏에서 인용한 賈逵의 구절을 보면 “서방의 雉를 鷦雉라고 하고, 나무를 다루는 장인이다. 동방의 雉를 鷦雉라고 하고, 흙을 두드리는 장인이다. 남방의 雉를 翟雉라고 하고, 쇠를 다스리는 장인이고, 북방의 雉를 鷦雉라고 하고, 가죽을 다스리는 장인이다(西方曰鷦雉, 攻木之工也; 東方曰鷦雉, 搏埴之工也; 南方曰翟雉, 攻金之工也; 北方曰鷦雉, 攻皮之工也).”²⁸⁾라고 하여 실제 다섯 관직을 五雉로 나타내었고,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に 속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갑골문에 나타나는 帝五臣은 帝의 다섯 신하로, 후대 전래 문헌의 산견된 내용을 보충 근거하여 五方이라는 다섯 방위에 각각 배당돼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인격화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후대 전래문헌의 내용과 주석서의 풀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점차 고대 왕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관리를 五臣의 형태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중이라는 다섯 방위에 배속되어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되었다.

28)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387-1388쪽.

3. 西周시기 五方の 확대 형태

五行의 시원과 형성 및 체계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검토 진행되고, 그중 先秦 출토문헌 중심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殷商시기 甲骨文 자료와 西周시기 金文, 東周시기 竹簡, 그리고 전래문헌 자료를 상호보충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이 이뤄진다.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된 기존 선행 자료를 살펴보면 예상과 달리 西周 金文을 토대로 五方の 발전 형태나 五行의 原型 또는 변천 체계를 탐구하려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주로 殷商시기 갑골문을 바탕으로 연구 검토되었거나 대부분 五行을 활발하게 이용했던 戰國시기 이후의 문헌을 통하여 정리되었으며, 간혹 일부 자료에서 금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단히 지역적으로 다뤄졌다.²⁹⁾

기원전 11세기, 武王이 商을 멸망시키고 周를 건국하여 두 정치 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 제도의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論語·爲政』에서 “주나라가 은나라 예를 인습하니 손익한 것을 알 수 있다(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³⁰⁾라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金文을 검토해보면, 殷商시기의 五方 개념이 西周시기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西周 金文에는 殷商 甲骨文에서 전승되었다고 보이는 五方과 유사한 형태의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殷商시기 五方에 대한 개념이 西周시기로 답습해 내려왔음을 증명해 주는 부분으로 보인다.

먼저, 논리 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이미 한 차례 검토된 자료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논의를 이어간다.

29)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年. 金景일, 「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38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年. 龐朴, 「陰陽五行探源」, 『中國社會科學』第3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84年.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4年. 趙容俊, 「清華簡所見的陰陽」, 『東洋古典研究』第74輯, 서울: 동양고전학회, 2019年. 薛立芳, 「從甲骨文、金文看陰陽五行的興起」, 『蘭臺世界』5月下, 2011年.

30)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0年, 沈陽: 遼寧報刊傳媒集團, 2463쪽.

大孟鼎(『集成』2837): “9월에 왕이 宗周에 있었다. 왕이 孟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孟! 크게 빛나는 文王께서는 天으로부터 大命을 받았다. 武王은 文王을 계승 받아 나라를 세우고, 감춰진 땅을 열고, 四方을 소유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佳(唯)九月, 王才(在)宗周, 令(命)孟, 王若曰: 孟! 不(丕)顯玟(文)王, 受天有大令(命), 杜(在)域(武)王嗣玟(文)乍(作)邦, 鬲(厥)匿, 匍(撫)有(佑)三(四)方, 吮(峻)正(厥)民.)”

師匍簋(『集成』4342): “皇帝께서는 (周 왕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 周를 굽어 살펴 보우하시니, 四方의 백성까지 안락하고 안정되지 않음이 없다(隸(肆)皇帝亡(戾)戩), 臨保我又(有)周, 孚(零)三(四)方民, 亡不康靜(靖)).”

鞶(『集成』4317): “나의 마음은 밝고 아름다워 四方에 미치게 하였다(鞶(致)朕心, 墜(施)于三(四)方).”

이상 세 銘文에 확인되는 “四方을 소유하고”, “四方의 백성까지”, “四方에 미치게”라는 구절의 “四方”은 중원이라는 지배층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단지 네 방향으로 국한해 표현한 부분이다. 이러한 공간 관념은 영토를 동·서·남·북·중으로 구분한 殷商시기의 지리적 인식이 전해져 내려오며 발생한 표현법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기 동·서·남·북·중이라는 영토적 구분을 나타내는 五方 개념이 西周시기로 전승되어 지배층이 있는 중심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四方으로 함축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³¹⁾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갑골 복사에는 “商”을 중심으로 “東土”, “南土”, “西土”, “北土”를 설정하여 지리적 구역을 구분하였다면, 西周 청동기 銘文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한 듯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 박성우·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85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1년.

禹鼎(『集成』2833): 아. 슬프도다! 天이 下或에 큰 재앙을 내려 鄂侯馭方이 南淮夷와 東夷를 거느리고 南或과 東或을 광범위하게 공격하여 歷內까지 이르렀다(烏(鳴)虜(呼)哀哉! 用天降大喪于下或, 亦唯噩(鄂)戾(侯)駿(馭)方, 衛(率)南淮尸(夷)、東尸(夷)廣伐南或、東或, 至于歷內).

保尊(『集成』6003): 을묘, 왕이 保에게 殷 東或의 五侯를 잡으라고 명하여 이에 여섯 물품을 하사하여 保가 치하 받고, 물품을 하사 받아 父癸의 종묘를 위한 보배로운 제기를 만들었으며, 四方이 조우하여 왕과 회합하여 주를 돕기를 제사하였다. 2월 보름(乙卯, 王令保及殷東或五戾(侯), 征(誕)兄(眚)六品, 蔑曆(曆)于(于)保, 易(錫)賓, 用乍(作)父癸宗寶(尊)彝, 邁于(于)三(四)方, 迨(會)王大祀, 祓(侑)于周, 才(在)二月既(翌)).

이상 西周 銘文에 나타나는 “東或”, “南或”의 “或”은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을 의미하고,³²⁾ “방위사+或”, “수량사+或”의 형태로 나타난다. “或”에 대한 『說文』 풀이를 보면 “或은 邦이다. 口를 의미요소로 하고, 戈를 의미요소로 하는 것은 그것으로 “一”을 지키는 것이다. “一”은 땅이다. 域은 或의 혹체이고, 土를 의미요소로 한다(或, 邦也. 從口從戈, 以守一. 一, 地也. 域, 或又從土).”³³⁾라고 하여 邦토(邦) 혹은 구역이나 강역(域)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西周 청동기 銘文에는 “東或”, “南或”과 함께 “中或”이라는 어휘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殷商시기 지배층이 거처하는 지역 “商”을 “中商”으로도 일컫는 부분과 상응하여 五方이 점차 후대로 전승되어 구축되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 중 하나로 판단된다.

何尊(『集成』6014): 왕께서 처음으로 成周로 도읍을 옮기고, 武王의 예법을 찬양하며 天에서 관제를 드리고 돌아왔다. 四月 丙戌일에 왕은 宗廟에서 小子에게 알려 주기를, “옛날 그대 부친(公氏)께서 文王을 위해 함께 해주

32) 김정열, 「西周時代の 東夷」, 『崇實史學』第32輯, 서울: 숭실대학교사학회, 2014년, 224쪽.

33) [漢]許慎; [宋]徐鉉校定,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년, 266쪽.

어, 文王이 이에 大命을 받았다. 武王이 大邑 商을 함락시키고, 天에게 삼가 아뢰기를 “저는 장차 여기 中或을 건설하고, 이곳으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佳{唯}王初鄴{遷}宅于{于}成周, 復再斌{武}王豐{禮}禘{禩}自天. 才{在}三{四}月丙戌. 王烹{誥}宗子. [小子] 于{于}京室. 曰: 昔才{在}爾考公氏. 克遼{仇}玟{文}王, 隸{肆}玟{文}王受茲[圖]圖. 佳{唯}斌{武}王既克大邑商, 鼎{則}延告于{于}天, 曰: 余其{其}宅茲中或, 自之辭{乂}民)

何尊의 銘文에서 “저는 장차 여기 中或을 건설하고(余其{其}宅茲中或)”라는 구절의 “中或”은 周의 중심지역을 나타내고, 殷商 갑골문 『合』20453.1의 “□사일에 균열을 내어 왕이 점치기를 中商에서 敵方을 방어하라(□巳卜, 王貞: 于中商乎禦方).”라는 구절의 “中商”은 商의 중심지역을 나타내어 “中商”과 “中或”은 모두 두 시대의 각 중심지역을 나타내는 대응 관계로 보여 진다. 다시 말하면, 殷商 시기에는 영토적 구분을 “東土”, “南土”, “西土”, “北土”, “中商”으로 방위사와 土가 함께 사용되었다면, 西周시기에는 “東或”, “南或”, “中或”으로 방위사와 或이 함께 사용되었고, 이러한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두 그룹은 모두 동일하게 五方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毛公鼎(『集成』2841) 銘文의 “四或을 안락하고 화목하게 하며(康能三{四}或)”, 逯盤(『新收』757) 銘文의 “四或 萬邦을 평정하였다(用夤三{四}或萬邦).”, 鞞鐘(『集成』260) 銘文의 “鞞是 만년토록 영원히 四或을 다스리고자 한다(鞞其{其}萬年, 畷{峻}保三{四}或).”라고 하여 “中或”을 제외한 동·서·남·북 네 개의 방위를 연상시키는 “四或”이 확인되고, 이는 殷商시기와 西周시기 五方的 계승 관계를 더욱 뚜렷이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西周 청동기 金文에는 지배층의 공간을 중앙, 그 이외의 공간을 四方으로 표현하여 五方的 범위에 모든 공간을 대입하려는 형태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東土”, “南土”, “西土”, “北土”, “中商”이라는 殷商시기 방위 구분 형태가 西周시기로 답습해 내려와 “東或”, “南或”, “中或”으로 영토를 구분 지었다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기록은 殷商시기 五方 관념이 西周

시기로 전승된 중요 근거 자료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殷商시기 五方 관념이 西周시기로 계승 보존되었고, 人事 활동에 스며들어 영토 구분에 지속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東周시기 五方의 확대 형태

東周시기에 이르러 五方 체계는 점차 사회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 응용되기 시작했고, 출토문헌과 함께 『春秋左傳』³⁴⁾, 『管子』³⁵⁾ 등의 전래문헌에서 또한 五方을 중심으로 자연현상과 사회 분야를 체계적으로 풀이 서술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五方의 확대 과정 중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전래문헌의 기록을

34) 昭公29年: ‘그러므로 五行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니 이를 五官이라고 한다. 이 五官은 실제로 나란히 氏와 姓을 받고, (생전에는) 작위를 받아 상공이 되었으며, (사후에는) 제사를 받는 귀한 신이 되어 사직과 오사의 제사되어 준봉을 받는다. 木正을 句芒이라고 하고, 火正을 祝融이라고 하고, 金正을 蓐收라고 하고, 水正을 玄冥이라고 하고, 土正을 后土라고 한다 (故有五行之官, 是謂五官, 實列受氏姓, 封爲上公, 祀爲貴神, 社稷五祀, 是尊是奉, 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502쪽.

35) 「四時」: ‘동방을 木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봄이며, 그 기운은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은 木과 뼈를 낳고, 그 덕은 기쁨으로 가득 차 만물을 시기에 맞게 나오게 한다. ……남방을 日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여름이며, 그 기운은 양이라고 한다. 양은 (五行의) 火와 氣를 낳는다. 그 덕은 은택을 베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중앙을 土라고 하는데, 토의 덕은 사시를 돕고, 바람과 비로 사시의 운행을 도우며, 토기를 조절하여 힘을 이롭게 한다. 토는 피부와 살을 낳는다. 그 덕은 화평하고 고르며, 中正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참으로 사시를 돕는다. ……서방을 辰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가을이며, 그 기운은 陰이라고 한다. 음은 (五行의) 金과 생물의 껍질(甲)을 낳는다. 그 덕은 근심하고 슬퍼함, 고요하고 바름, 장엄하고 화순함, 거처함에 감히 방탕하지 않음이다. ……북방을 月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겨울이며, 그 기운은 추위라고 한다. 추위는 (五行의) 水와 생물의 血을 낳는다. 그 덕은 순박하고 청초함, 온량한 위세, 자세하고 세밀함이다(東方曰木,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其德喜羸, 而發出節時,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其德施舍修樂 ……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 入出以風雨, 節土益力, 土生皮膚膚,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 實輔四時,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其德憂哀, 靜正, 嚴順, 居不敢淫伏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其德淳越溫怒周密).’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842-854쪽.

인급하도록 한다. 春秋시대 사회 문화와 管仲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管子』의 「幼官」과 「幼官圖」 편에서 四時를 人事 활동과 짝지어 군주의 법도와 역할, 圖의 구도와 역할, 군사 무기와 형벌 등을 다섯 형태로 구분하여 배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幼官」 편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과 다섯 형태로 범주화하여 간략히 분류한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幼官」: “五和時節에 군주는 황색 옷을 입고, 단맛을 맛보고, 宮聲을 들으며, 和氣를 다스린다. 五數를 사용하고, 黃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倮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온화한 마음을 품고, 다스림에 힘쓰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仁을 실천하고 義를 행하며 정성을 따르고 신의를 베풀면, 왕업을 이룰 수 있다.……이는 圖의 方中에 있어야 한다.……八舉時節에 군주는 청색 옷을 입고, 신맛을 맛보고, 角聲을 들으며, 燥氣를 다스린다. 八數를 사용하고, 靑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羽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인자한 마음을 품고, 다스림에 힘쓰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東方 方外에 위치한다.……七舉時節에 군주는 붉은색 옷을 입고, 쓴맛을 맛보고, 羽聲을 들으며, 陽氣를 다스린다. 七數를 사용하고, 赤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毛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순박한 마음을 품고, 돈독하게 실천하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南方 方外에 위치한다.……九和時節에 군주는 흰색 옷을 입고, 매운맛을 맛보고, 商聲을 들으며, 溼氣를 다스린다. 九數를 사용하고, 白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介蟲의 火로 밥을 짓는다.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너그럽고 민첩하게 행동하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西方 方外에 위치한다.……六行時節에 군주는 검은색 옷을 입고, 짠맛을 맛보고, 徵聲을 들으며, 陰氣를 다스린다. 六數를 사용하고, 黑后의 井에서 물

36) 「幼官」과 「幼官圖」의 내용에 근거하여, 두 편에 기록된 사상 내용이 西周시기에 이미 발생했다고 추단한 견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劉長林,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유학연구』 제 3집, 대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5년, 291쪽.

을 마시며, 鱗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자에롭고 두터운 마음을 지니고 순박한 태도로 행동하며, 심기를 닦고 통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형상은 성장하며 다스려진다.……이는 圖의 北方 方外에 위치한다.……”³⁷⁾

“반드시 병영에 장수를 배치하고, 군사 전략은 반드시 미리 정한다. 천하의 좋은 병장기를 구하고, 많은 장인들이 무기 제조 방안을 논의하며, 무기가 완성되면 성능의 좋고 나쁨을 시험한다.……이는 圖의 方中에 위치한다.……기물은 청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창을 주관하며, 형벌은 곧 칼을 썬우거나 차꼬를 채우는 목형을 쓴다.……이는 圖의 東方 方外에 위치한다.……기물은 적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긴 창을 주관하며, 형벌은 여름의 형벌을 쓴다.……이는 圖의 南方 方外에 위치한다.……기물은 백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검을 주관하며, 형벌은 칼로 베는 도참의 형벌을 쓴다.……이는 圖의 西方 方外에 위치한다.……기물은 흑색을 숭상하고, 병장기는 거드랑이에 끼는 방패를 주관하며, 형벌은 물에 빠뜨리는 형벌을 쓴다.……이는 圖의 北方 方外에 위치한다.”³⁸⁾

- 37) ‘五和時節, 君服黃色, 味甘味, 聽宮聲, 治和氣, 用五數, 飲於黃后之井, 以僕獸之火爨, 藏溫濡, 行毆養,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身仁行義, 服忠用信, 則王.……此居圖方中.……八舉時節, 君服青色, 味酸味, 聽角聲, 治燥氣, 用八數, 飲於青后之井, 以羽獸之火爨, 藏不忍, 行毆養,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東方外.……七學時節, 君服赤色, 味苦味, 聽羽聲, 治陽氣, 用七數, 飲於赤后之井, 以毛獸之火爨, 藏薄純, 行篤厚,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南方外.……九和時節, 君服白色, 味辛味, 聽商聲, 治溼氣, 用九數, 飲於白后之井, 以介蟲之火爨, 藏恭敬, 行搏銳,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西方外.……六行時節, 君服黑色, 味鹹味, 聽徵聲, 治陰氣, 用六數, 飲於黑后之井, 以鱗獸之火爨, 藏慈厚, 行薄純, 坦氣修通, 凡物開靜, 形生理.……此居於圖北方外.’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35-158쪽.
- 38) ‘必設常主, 計必先定, 求天下之精材, 論百工之銳器, 器成角試否臧.……此居於圖方中.……旗物尙青, 兵尙矛. 刑則交寒害鈇.……此居於圖東方外.……旗物尙赤, 兵尙戟. 刑則燒交疆郊.……此居於圖南方外.……旗物尙白, 兵尙劍. 刑則紹味斷絕.……此居於圖西方外.……旗物尙黑, 兵尙脅盾. 刑則游仰灌流.……此居於圖北方外.’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66-178쪽.

[표1] 『管子·幼官』의 다섯 분류표

五方	中央	東	南	西	北
時期	五和時節	八學時節	七學時節	九和時節	六行時節
四時	--	봄	여름	가을	겨울
五色	黃色	青色	赤色	白色	黑色
五數	5	8	7	9	6
五井	黃后之井	靑后之井	赤后之井	白后之井	黑后之井
五獸	倮獸	羽獸	毛獸	介蟲	鱗獸

이상 제시한 「幼官」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五和時節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八學時節, 七學時節, 九和時節, 六行時節이라는 문구와 대응하여 각 계절에 지켜야 할 군주의 예절과 도리, 정사에 관한 내용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흥미롭게 볼 부분은 五和時節과 대응하는 계절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어 풀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五和時節에 대한 注를 보면, “土는 數五를 生하고, 土氣는 和이며, 군주는 때에 순응하여 정사를 돌본다(土生數五. 土氣和, 則君順時節而布政).”³⁹⁾라고 하여 五和時節과 土는 동일 공간에 배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呂氏春秋·季夏紀第六』에서 “중앙은 土이다. 그 날은 戊己일이며, 帝는 黃帝, 神은 后土, 蟲은 倮, 音은 宮, 律은 黃鐘의 宮, 수는 다섯, 맛은 단맛이다(中央土: 其日戊己, 其帝黃帝, 其神后土, 其蟲倮, 其音宮, 律中黃鐘之宮, 其數五, 其味甘).”⁴⁰⁾라는 기록을 통하여 五和時節의 시기를 늦은 여름(季夏)으로 추측할 수 있다.⁴¹⁾ 그러나 여기서 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幼官」 편의 서두에 봄이 아닌 늦은 여름을 기점으로 사계절을 나열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幼官」 편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 년을 12일씩 30節氣로 나누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⁴²⁾ 모두 봄·여름·가을·겨울에 배속하여 五和時節에 속하

39)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35쪽.

40) 陳奇猷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年, 312쪽.

41) 五和時節을 季夏의 시기로 늦여름으로 풀이한 번역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김필수, 고대학, 장승구, 신창호, 『관자』, 경기: 소나무, 2006년, 90쪽.

42) 『管子·幼官』의 내용에 근거하면, 일 년 360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일을 한 주기로 30절기로 나누었다. 봄을 地氣發, 小卯, 天氣下, 義氣至, 清明, 始卯, 中卯, 下卯로, 여름을 小野, 絕氣下, 仲野, 中絶, 大暑至, 中暑, 小暑終으로, 가을을 期風至, 小卯, 白露下, 復理, 始節, 始卯, 中卯,

는 기간이 없다.

즉, 「幼官」 편에서 서술된 내용은 사시를 중심으로 만사만물을 배속하는 구조가 아닌, 五方を 중심으로 사시와 접목해 기록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 인식이 시간적 인식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고, 두 인식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혼합 형태에서 중앙을 중심으로 동·남·서·북을 차례로 사시와 만사만물이 배속된 지리적 중심의 오방 관념이 확대된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⁴³⁾

앞서 殷商 갑골문과 西周 청동기 금문의 용례에 근거하면 동서남북 네 방위와 그 방위에서 이뤄진 모든 행위는 “중앙”이라는 영토적 중심 거처가 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西周 이전의 五方이라는 방위 개념이 후대에 영향을 끼쳤고, 영토적 관점의 五方이 시간적 관점의 영역으로 점차 스며드는 확대 변천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으로 판단된다. 즉,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五方に 대한 인식이 심리에 담겨 지배층이 존재하는 중앙으로부터 동남서북의 인사 현상을 총괄하는 동시에 자연의 순리와 일상 생활상의 예법, 제도까지 모두 지위 조정하려는 행위로 확대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동·서·남·북이라는 五方 인식을 중심으로 사시와 자연 현상의 순환, 사회 예법과 제도를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 아래 五方 체계는 더욱 정제되어 정형화되었고, 후대로 전해지며 점차 중앙을 나타내는 토가 사시에 맞춰 조정되어 사계절의 중간지점에 배속되었으며, 木·火·土·金·水 즉, 동·남·중앙·서·북에 봄·여름·늦여름·가을·겨울을 배속하는 형태로 서술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幼官」 편보다 늦은 시기에 서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四時」 편과 『呂氏春秋』十二紀에서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배열이 이뤄진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⁴⁴⁾

下卯로, 겨울을 始寒, 小榆, 中寒, 中榆, 寒至, 大寒之陰, 大寒終으로 구분하였다.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147-157쪽.

43) 劉長林은 五和時節에 대하여 중앙이 균위를 대표한 이상, 한 때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배명환은 “방위의 中央”에 “시간의 중앙”에 해당하는 “제5의 계절”인 “중앙도의 계절”을 당위로 상정하여 사유한 결과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劉長林,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유학연구』제3집, 1995年, 292쪽. 배명환, 『陰陽五行에 근거한 六合空間觀에 관한 研究』,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년.

44)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年, 842-855쪽. 陳奇猷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年, 312쪽.

이 밖에 五方을 중심으로 만사만물이 배당되는 형태는 東周시기 출토자료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清華簡『筮法』：“동방은 목이다. 청색이다. 남방은 화다. 적색이다. 서방은 금이다. 백색이다. 북방은 수다. 흑색이다(東方也, 木也, 青色。[60] 南 [49] 方 [50] 也, [51] 火 [52] 也, [53] 赤 [50] 色 [51] 也。[52] 西方也, 金也, 白色。[42] 北 [49] 方 [50] 也 [51], 水 [52] 也, [53] 黑 [50] 色 [51] 也。[52]。)”⁴⁵⁾

睡虎地秦簡『日書』甲種：“동방은 목이다. 남방은 화다. 서방은 금이다. 북방은 수다. 중앙은 토이다(東方木八八背叁, 南方火八九背叁, 西方金九〇背叁, 北方水九一背叁, 中央土九二背貳)。”⁴⁶⁾

이상, 출토자료의 내용 또한 동·남·서·북·중으로 설정된 지리적 공간에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요소와 함께 五色을 배당한 형태로 서술되었다. 이는 西周 이전 시기에 이미 체계적으로 조직된 영토적 중심의 五方 개념에서 만사만물을 배속하여 사회의 질서와 왕조의 법기를 다스리려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리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연상은 五方을 중심으로 만사만물이 배속되는 형태와 함께 五材를 이용하여 五行相生說, 相剋說의 이론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相生은 五方に 배속된 五材를 바탕으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라고 하여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서로 순환하며 조화를 이뤄내는 이치를 말하고, 相剋은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라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부정하는 이치를 말한다. 天水放馬灘 秦墓에서 출토된 簡牘 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放馬灘『日書』乙種：“토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는다(土生木, 木生火, 火生土^{77貳})。”⁴⁷⁾

45) 李學勤, 『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 上海: 中西書局, 2013年.

46)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年, 223쪽.

47) 陳偉 主編, 『秦簡牘合集·肆』,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4年, 58쪽.

진래문헌 『淮南子·天文訓』에서 또한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는다(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⁴⁸⁾라고 하여 위 내용과 동일하게 서술된 구절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단지, 放馬灘 『日書』 乙種에서는 “土生木”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전통적인 오행상생설에 근거하여 “土生木”의 “土”는 “水”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睡虎地秦簡 『日書』의 甲種과 乙種에서 또한 五行 相生相剋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睡虎地秦簡 『日書』 甲種: “金은 木을 이기고, 火는 金을 이기고, 水는 火를 이기고, 土는 水를 이기고, 木은 土를 이긴다(金勝木_{八三背叁}, 火勝金_{八四背叁}, 水勝火_{八五背叁}, 土勝水_{八六背叁}, 木勝土_{八七背叁}).”⁴⁹⁾

睡虎地秦簡 『日書』 乙種: “丙丁日是 火다. 火는 金을 이긴다. 戊己日是 土이다. 土는 水를 이긴다. 庚辛日是 金이다. 金은 木을 이긴다. 壬癸日是 水이다. 水는 火를 이긴다. 酉丑巳일은 金이다. 金은 木을 이긴다. 卯. 未亥卯日是 木이다. 木은 土를 이긴다. 辰申子日是 水이다. 水는 火를 이긴다(丙丁火, 火勝金_{七九貳}, 戊己土, 土勝水_{八〇貳}. 庚辛金, 金勝木_{八一貳}, 壬癸水, 水勝火_{八二貳}. [酉]丑巳金, 金勝木_{八三貳}. 卯. 未亥[卯木, 木]勝土_{八五貳}, 辰申子水, 水勝火_{八七貳}).”⁵⁰⁾

이상 제시한 『放馬灘』 죽간과 『睡虎地』 죽간은 문장 구성과 서술 내용에 근거하여 전자는 秦의 영향을 후자는 楚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⁵¹⁾ 이에 근거한다면 戰國시대에 이미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に 만사만물을 배속하는 방

48)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年, 277쪽.

49)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日書甲種釋文注釋』, 北京: 文物出版社, 1990年, 223쪽.

50)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日書乙種釋文注釋』, 北京: 文物出版社, 1990年, 239쪽.

51) 何雙全, 「天水放馬灘秦簡甲種『日書』考述」, 『秦漢簡牘論文集』,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9年, 23쪽.

식과 함께 五材를 이용한 五行相生相剋 이론 또한 어느 정도 정제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점차 후대로 내려오며 五行相生相剋의 관계는 정치·철학에 확대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左傳』昭公31年: “화는 금을 이기기 때문에 [뫓가] 승리하지 못한다(火勝金, 故弗克).”⁵²⁾

『左傳』哀公9年: “수가 화를 이기기 때문에 강씨의 나라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水勝火, 伐姜則可).”⁵³⁾

『史記·秦始皇本紀』: “시황은 종시오덕의 원리에 근거하여 주나라는 화덕을 얻었고, 진나라는 주나라의 덕을 대체하였으므로 반드시 주나라의 덕에 눌리지 않는 덕을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바야흐로 수덕이 시작되었고,……의복과 부절 및 깃발의 색깔은 모두 흑색을 최상으로 여겼다. 숫자는 6을 밑바탕으로 설정하여 부절과 法冠은 모두 6촌으로, 수레의 넓이는 6척으로, 6척을 1보로, 수레 한 대는 여섯 마리의 말이 끌도록 정하였다(始皇推終始五德之傳, 以爲周得火德, 秦代周德, 從所不勝. 方今水德之始,……衣服旄旌節旗皆上黑. 數以六爲紀, 符、法冠皆六寸, 而輿六尺, 六尺爲步, 乘六馬).”⁵⁴⁾

권력층은 五行의相生相剋을 이용하여 자연계의 만사만물을 지배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운행 논리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왕조의 흥폐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더욱이 위 제시한 『秦始皇本紀』 기록에 근거하면, 五行相生相剋 이론은 秦 왕조에 깊이 침투되어 운영되었고, 심지어 北方에 배속되어 있는 옷, 색깔, 숫자 등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다.

52)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514쪽.

53)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1年, 1653쪽.

54) [漢]司馬遷, 『史記(全十冊)』, 北京: 中華書局, 1959年, 237-238쪽.

정리하면, 東周시기에 이르러서야 五方 체계는 점차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근본과 대상이 다른 계통의 결합 또는 만사만물을 五方に 배속하여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배속된 五材를 이용하여 五行 相生相剋의 원리로 왕조의 중대사를 예측하는 형태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 先秦시기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에 확인되는 五方の 확대 형태를 살펴보았다. 殷商 甲骨文과 西周 金文, 東周 竹簡 및 전래문헌의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殷商시대 갑골문 자료에는 중앙과 사방이라는 五方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네 방위를 향한 제례 행위가 이뤄진 동시에 각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배속한 듯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는 농업이 주 생산 분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하여 방위적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후대 전래문헌에서 고대 왕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관리를 五臣의 형태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섯 방위에 배속한 형태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殷商시대 五臣에 대한 인식이 후대로 전승되어 답습된 내용으로 추단할 수 있다.

둘째, 청동기 金文 자료에 근거하면, 西周시기 또한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지닌 지배층의 거처 공간을 중앙, 그 이외의 공간을 四方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東土”, “南土”, “西土”, “北土”, “中商”이라는 殷商시기 방위 구분 형태가 답습되어 西周시기에는 “東或”, “南或”, “中或”의 형태로 영토 구분이 이뤄진 사실을 분석 도출하였다. 다시 말하면, 殷商시기 五方 관념이 西周시기로 계승 보존되었고, 영토 구분 또는 구역의 구분 표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셋째, 東周시기에 이르러 五方 체계는 더욱 확대되었고, 四時와 접목되어 만사만물을 배속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배속된 五材를 이용하여 相

生相剋의 원리로 우주만물의 생성과 소멸, 변화를 해석한 동시에 왕조의 중대사 뿐만 아니라 흥망성쇠의 과정을 相生相剋으로 해석하는 형태로 확대 변천되었다.

정리하면, 五行의 모태는 五方으로, 西周 이전시대까지 동·서·남·북·중이라는 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점차 후대로 진승되면서 의미의 확대 변천과 다른 계통과의 결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東周시기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만사만물을 분류 배속하는 하나의 수평적 형태의 분류로 이뤄진 동시에 五方に 배속된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운행하며 만사만물이 相生相剋하는 수직적 형태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생성론과 도덕심성론의 범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參考文獻】

- 배명환, 『陰陽五行에 근거한 六合 空間觀에 관한 研究』,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 박성우·문치웅, 「출토문헌을 통해 본 五行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85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1.
-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
-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1988.
- 陳佩芬, 『夏商周青銅器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陳奇猷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 陳偉 主編, 『秦簡牘合集肆』,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4.
- 郭沫若, 『甲骨文合集』第五冊, 北京: 中華書局, 1979.
- 郭沫若, 『甲骨文合集』第十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3.
-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 何雙全, 「天水放馬灘秦簡甲種『日書』考述」, 『秦漢簡牘論文集』,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9.
-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 胡厚宣, 「論五方觀念及『中國』稱謂之起源」, 『甲骨學商史論叢初集(上)』, 濟南: 齊魯大學國學研究所, 1944.
- 김경일, 「殷代 갑골문을 통한 “五行”의 문화적 기원 연구」, 『中語中文學』第38輯,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 김정열, 「西周時代의 東夷」, 『崇實史學』第32輯, 서울: 숭실대학교사학회, 2014.
-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경기: 소나무, 2006.
- 李學勤, 『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 上海: 中西書局, 2013.
- 李學勤, 「商代的四風與四時」, 『中州學刊』第五期, 鄭州: 河南省社會科學院, 1985.
-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 連劭名, 「甲骨刻辭所見的商代陰陽數術思想」, 『中國古代思維模式與陰陽五行說探源』,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 劉長林, 「五行學說的 起源과 形成」, 『유학연구』제3집, 대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5.
-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 龐朴, 「陰陽五行探源」, 『中國社會科學』第3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84.
-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4.
- 彭林 譯注, 『儀禮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出版, 1997.

- 秦永龍,『西周金文選注』,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2.
- [清]阮元 校刻,『十三經注疏(全二冊)』,北京:中華書局,1980.
-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組校點,『國語(共二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十三經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睡虎地秦墓竹簡』,北京:文物出版社,1990.
- [漢]司馬遷,『史記(全十冊)』,北京:中華書局,1959.
- 王進鋒,『臣、小臣與商周社會』,上海:上海人民出版社,2018.
- 吳小強,『秦簡日書集釋』,長沙:岳麓書社,2000.
- [漢]許慎;[宋]徐鉉校定,『說文解字』,北京:中華書局,1963.
- 徐元誥撰;王樹民,沈長雲點校,『國語集解』,北京:中華書局,2002.
- 薛立芳,「從甲骨文、金文看陰陽五行的興起」,『蘭臺世界』5月下,沈陽:遼寧報刊傳媒集團,2011.
- 楊伯峻,『春秋左傳注(修訂本)』,北京:中華書局,1981.
- 姚萱,「華東甲骨“多彡臣”與相關問題」,『史林』第6期,上海:上海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2010.
- 于省吾主編,『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1999.
- 于省吾,「釋四方和四方產的兩個問題」,『甲骨文字釋林』,北京:中華書局,1979.
- 張固也,「論《管子·幼官》和《幼官圖》」,『齊魯文化研究』總第3輯,濟南:齊魯書社,2004.
- 趙容俊,「清華簡所見的陰陽」,『東洋古典研究』第74輯,서울:동양고전학회,2019.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小屯南地甲骨·下冊』第一分冊,北京:中華書局,1983.
- 周法高,『金文詁林』,香港:香港中文大學,1975.
- 鄒漢勛,『讀書偶識』,北京:中華書局,2008.

[국문초록]

고대 동아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五行의 기원과 발전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토된 殷商시대 갑골문 자료에 근거하면, 五行은 五方이라는 영토적·방위적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五方의 기초 형태와 五方을 토대로 확대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정리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본고에서는 殷商시대 갑골문에 나타나는 영토적, 공간적 관점의 五方과 함께 파생된 의미를 제시하고, 西周와 東周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파생된 의미의 확대 변천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殷商시대 갑골문 자료에 보이는 五方의 구조는 중앙과 사방이라는 다섯 구역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네 영역에 대한 제사 행위가 이뤄진 동시에 각 방위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배치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청동기 金文 자료에 근거하면, 西周시대 또한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지닌 지배층의 공간을 중앙, 그 이외의 공간을 四方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殷商시대 “東土”, “南土”, “西土”, “北土”, “中商”이라는 방위 구분 형태가 답습되어 “東或”, “南或”, “中或”의 형태로 영토 구분이 이뤄진 사실을 분석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東周시대에 와서야 五方 체계는 방위와는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四時와 접목되어 만사만물을 배속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배속된 五材를 이용하여 五行 相生相剋의 원리로 우주만물의 생성과 소멸, 변화를 해석한 동시에 왕조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확대 변천되었다.

정리하면, 五行의 모태는 五方으로, 西周 이전시대까지 동·서·남·북·중이라는 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운영되었고, 점차 후대로 전승되어 의미의 확대 변천과 다른 계통과의 결합이 이뤄졌으며, 東周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만사만물을 분류 배속하는 하나의 수평적 형태의 분류가 이뤄진 동시에 五方に 배속된 水·火·木·金·土라는 다섯 요소가 운행하며 만사만물이 相生相剋하는 수직적 형태의 이론으로 변천되었다.

[Abstract]

Expanded Contents of the Directions and Their Territorial
Concept(五方) Based on the Oracle Bone and Bronze Scripts
Data from Shang and Zhou Dynasties

Park, Seong-woo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aditions and cultures of ancient East Asia, it is basically necessary to review the origin and development form of Five Elements (五行) which are composed of Water(水), Fire(火), Wood(木), Metal(金), and Earth (土). Based on the excavated oracle bones data, the five elements were derived from the directions and their territorial concept (五方). Based on these contents, we proceed with a more multifaceted analysis of the form based on the five directions and their areas and the expanded conte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discussed the five directions and their areas of the territorial and spatial perspectives that appeared in the oracle bone of the Shang Dynasty and their derived meanings. In addition, the process of expanding and changing the derived meaning found in the data of the Western Zhou and East Zhou Dynasty was intensively reviewed and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five directions and their areas expressed in the oracle bone material is shown in the form of sacrificial acts for the four areas in the center based on the five areas of the center and four directions, and the local governor for each direction is arranged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based on the bronze scripts data, even in the Western Zhou Dynasty, the center of the country was centered and the surrounding space was divided into four directions and their areas. These five area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five directions of “東土”, “南土”, “西土”, “北土”, and “中商” during the Shang Dynasty, and territories were classified in the form of “東或”, “南或”, “中或” during the Western Zhou Dynasty. In the era of Eastern Zhou Dynasty, the directions and the interpretive concept expanded to areas different from its own meaning, and combined with time and season to reach the stage of use in various fields.

- [Key words] Five Elements (五行), directions and their territorial concept (五方), Shang Dynasty, Zhou Dynasty, four directions and their areas
- [주 제 어] 五行, 五方, 殷商 甲骨文, 周代 金文, 네 방향, 지역 구분

투 고 일 : 2022. 02. 08

심 사 일 : 2022. 02. 18 ~ 03. 03

게재확정일 : 2022. 03. 08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여부(예/아니오) : 아니오

